지상백고좌

봉선사 회주 밀운 부림 대종사

“색불이공 공불이색, 붓다의 오도 본령”

〈色不異空〉 〈空不異色〉



밀운 부림 대종사는… 1954년 3월 15일 경북 영주 초암사 대오(大悟)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경북 영주 비로사에서 무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부림(部林)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71년 8월 11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증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2년 10월 30일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을 법사로 건당입실하고 밀운(密耘)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2004년 5월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수 받았다. 1967년 봉선사에서 교과를 수료했으며, 1982년 스리랑카 승가사범대학 미투라(삼장법사) 박사,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대학 명예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이사(理事) 모두 맡아 제5·6·7·8·9·10대 조계종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 서울 봉은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법규위원장, 광동학원 이사,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 이후 조계종 원로의원과 원로의장, 명예원로의장, 종정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25교구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회주로 주석하며 후학 지도와 도량 수호의 지남(指南)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교종(教宗)의 종풍(宗風)과 선종(禪宗)의 선맥(禪脈)이 계승되고 있는 본사이다. 월초 화상(和尙)이 교종판사가 되고 나서 줄곧 주석하시면서 가람을 중수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던 까닭에 봉선사에는 한국의 구마라집이라고 칭송 받는 운허 스님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강백들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교종 본찰의 전통은 한글대장경 318권을 완간한 역경보살 월운 대강백에게 계승돼 내려왔다. 그렇다고 해서 봉선사 대중이 선종의 청정한 수행가풍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었다. 입산한 이래 여러 해 동안 줄곧 화두만을 참구하며 수행한 명허 스님은 봉선사의 선맥을 대표하는 선승이라고 할 수 있다. 선과 교를 아우르는 봉선사의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행자가 바로 봉선사 회주 밀운(密耘) 부림(部林) 대종사이다.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경 필자는 봉선사 초입에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포행(布行)하는 한 노스님을 봤다. 그 노스님은 다름 아닌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돼 있던 밀운 스님이었다. 선 채로 합장 반배한 뒤 내 소개를 하자 밀운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화답하였다.

“두 시에 뵙기로 했는데 일찍 왔군요.”

구순을 넘긴 세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평소 계행을 잘 닦아온 터라 법체가 꼿꼿하고 강건하였다. 스님을 따라서 올라간 주석처 입구에는 인면(人面) 형상의 괴석(怪石)이 서 있었다. 그 괴석에는 ‘우주일광(宇宙一光)’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밀운 스님은 지팡이를 괴석의 위쪽을 가리켰다.

“이 돌은 납승이 봉선사 뒷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돌을 만져 봐요. ‘우주일광’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서인지 좋은 기운이 돌아요.”

‘우주일광’, 우주의 근본 원리

주석처에 들어선 뒤 밀운 스님은 ‘우주일광’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활안 스님이 BTN불교TV에 인도교단사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는데 활안 스님이 부처님께서 오도(悟道)를 이루신 뒤 녹야원에 당도한 이야기를 설명하더군요. 제자들이 ‘싯다르타의 뒤에 후광이 비춥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서 교진여(阿若驕陳如)는 즉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을 보고서 제가 활안 스님을 찾아가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진공묘유(眞空妙有)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으니 활안 스님이 파안대소(破顔大笑)하면서 좋아하더군요.”

밀운 스님은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이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습니다. 하지만 6년간 고행하였으나 해탈하지 못해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네란자라강에서 목욕하신 뒤 수자타의 공양을 들고서 몸을 추스르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다가 어느 새벽 샛별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새벽에는 사위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샛별이 떠서 허공의 어둠을 물리치고 여명(黎明)을 밝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다름 아닌 진공묘유의 이치입니다.”

“광자, 원자 등 에너지가 바로 一光
生하지도 滅하지 않는 불변의 근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와 같아
모든 실상이 진공임을 알아야 한다”

밀운 대종사의 말인즉슨, 비유컨대 새벽의 어둠이 진공(眞空)이고, 샛별이 묘유(妙有)라는 것이었다.

“우주 허공이 진공묘유임을 아시고 나니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생로병사가 연기법에 의거해 정집(情執)된 것임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밀운 대종사의 주장에 따르면 부처님 오도의 본령은 ‘색불이공(色不異空) 공불이색(空不異色) 색즉시공(色即是空) 공즉시색(空即是色)’이고, 〈반야심경(般若心經)〉의 ‘제법공상(諸法空相)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 공중무색(空中無色)’ 등 구절은 일종의 부연설명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에 운허 스님께서 봉은사에서 〈능엄경(楞嚴經)〉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하루는 무아(無我)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 제가 ‘금을 쪼개서 분해해 아주 작은 입자(쿼크)로 만든다고 해도 은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운허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입자(쿼크)가 자성(自性)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바로 ‘우주일광’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밀운 스님의 주장은 현대물리학과 합일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의 ‘E=MC2’ 공식을 통해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等價性)을 증명했다. 질량은 가시적이니 ‘색’에 해당하고 에너지는 비가시적이니 ‘공’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논리를 통해 입자성과 파동성이 서로 제약을 받으면서 공존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 입자는 가시적이니 ‘색’에 해당하고 파동은 비가시적이니 ‘공’에 해당할 것이다. 현대물리학의 양축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주일광’은 현대물리학에서 말하는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필자의 질문에 밀운 스님은 긍정의 표시인 듯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쳤다.

“일광(一光)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광자라든지 원자라든지 소립자(素粒子)의 에너지가 모두 일광입니다. 이 일광은 불생불멸(不生不滅), 즉, 생하지도 멸하지 않고, 불구부정(不垢不淨), 즉,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부증불감(不增不減), 즉,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일광이 연기법에 의거해 정집된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 변하여도 이 일광의 근원은 불변하니, 색즉시공(色即是空) 공즉시색(空即是色)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일광은 다시 말해 공성(空性) 내지는 불성(佛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광의 작용이 마음(心)이므로 일광 없는 마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감산 대사는 〈반야심경 오가해 강기〉에서 제법공상(諸法空相)을 진공실상(眞空實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납승도 감산 대사의 탁월한 견해에 공감합니다. 실상이 진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밀운 스님이 역설하는 진공은 불교용어인 동시에 물리학 용어이기도 하다. 물리적 진공이란 입자와 반입자가 결합하여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다. 빈틈이 없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11면에 계속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빼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520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